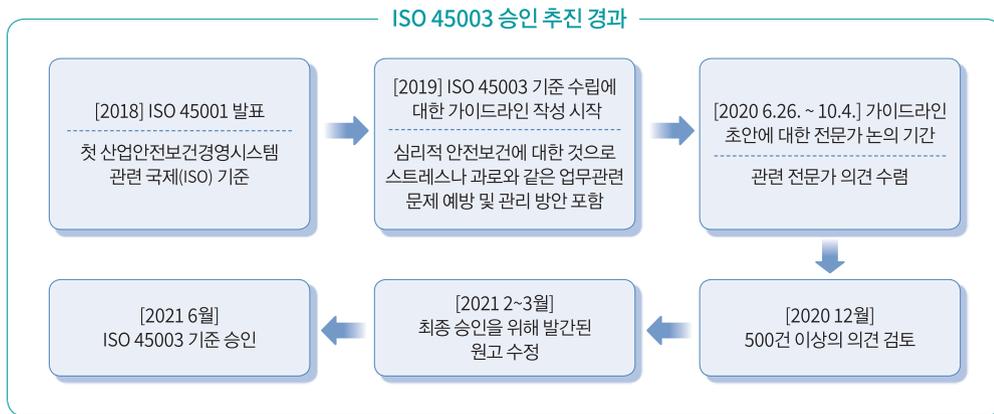


「 영국 - 근로자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준, ISO 45003 」

· 국제표준기구(ISO¹⁾)는 ISO 45003 기준 수립을 통해 기존 ISO 45001(안전보건경영시스템)을 도입한 사업장이 근로자의 사회심리적 정신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침 제공²⁾

서론

- 최초의 심리적 안전보건에 관한 국제기준인 ISO 45003 이 지난 6월 승인됨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사회심리적 위험요소 관리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얻게 됨
 - » ISO 45003은 국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ISO45001*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,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 및 활용하고 있는 조직에서 근로자의 ‘정신건강’ 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
 - *[덧붙임]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가계도 참조
- 영국 산업안전보건협회(IOSH)는 ISO 45003 승인까지의 주요 추진 현안 및 업계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동 지침에 대한 의견을 인터뷰함



- 코크 대학교 교수이자 ISO 45003 개발 워킹그룹 공동 의장인 스타브로우라 레카(Stavroula Leka) 교수는 ISO 45003의 개발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함
 - » “조직이나 조직의 설계 및 관리가 열악할 경우 허약한 정신건강, 상승적인 무단결근이나 필요 이상으로 직장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문제, 휴면 애러 등의 문제와 연관될 수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심리적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기준의 필요가 대두됨”

1)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

2) 출처 : <https://www.ioshmagazine.com/2021/01/06/delving-deeper-iso-45003>

지침 초안 작성 과정

- 레카 교수는 「사회심리적 위험성」을 “사회적인 요인에서부터 작업환경 및 위험한 업무의 측면까지 일을 구성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위험요소” 라고 정의하였으며, 모든 조직이나 업종에는 사회심리적인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함
- 초안 작성 당시 ‘사회심리적(psychosocial)’이라는 용어가 너무 의학적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만큼 동 용어가 사용됨
- 2020년 10월까지 참여 유관 기관들이 초안 원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함
- 영국산업안전보건협회 정책개발담당자 이반 짐메네즈(Ivan Williams Jimenez)에 따르면 ISO 45003 초안 작성 당시 ‘업무 구성 및 설계는 심리적 안전과 건강의 좋고 나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, 이에 아주 세부적인 대응책과 복합적인 접근법이 필요’ 하다는 것을 염두에 둬
- ISO 45003은 공식 인가시스템이 아니라 가이드라인(원문: Guidance)이기 때문에 초안 수정본에는 사회심리적 위험성의 구성요소, 개인이나 조직에 미치는 영향, 그리고 어떻게 평가되고 관리되는지가 포함됨



ISO 45003의 범위와 기대효과

- 영국 심리학회(BPS³)는 ISO 45003이 너무 단순 간결하다는데 우려를 표함
 - » 영국 심리학회는 “일선 관리자와 같이 ‘비 심리전문가’가 작업장에 존재할 수 있는 심리학적 문제를 이해하는데 동 지침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심리적 평가는 반드시 전문 교육을 받은 심리전문가 수행해야 한다” 고 제안함
- 이에 레카 교수는 ISO 45003의 기대효과는 일선 관리자를 심리전문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, ‘조직이 긍정적인 사회심리적 환경을 조성’ 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언급함
 - » 또한 동 기준의 목적은 심리학적인 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는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‘예방’ 으로의 목적이라는 것을 강조함
- P사의 안전보건 규제 담당 변호사인 라이언 그레입스(Rhian Greaves)는 “정신 건강은 개인, 문화, 인종, 종교, 성별 및 기타 문제에 영향을 받으며, ISO 45003으로 인해 최소한 ‘사업장에서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소’ 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” 라고 의견을 개진함
- 영국산업안전보건협회 공인회원(Chartered Member)이자 T사의 경영이사인 앤서니 에커슬리(Antony Eckersley)는 “많은 기업이 여전히 정신건강 문제를 덮어두고 있으며, ISO 45003은 건강한 정신건강과 이를 위한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해 선제적인 시도가 될 것이다” 라고 의견을 개진함

3) the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

소식 보기

: 국제산업보건동향

현장의 근로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최초의 국제 기준

정신건강이나 웰빙을 해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근로 조건이나 근로 환경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며 이러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

한눈에 보는 ISO 45003

업무관련 부상이나 작업관련성 질병 예방 및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ISO 45001 기준을 기존에 활용하는 사업장이 추가로 활용할 수 있음

ISO 45003은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장의 정의를 ‘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건강에 해가 되는 활동(문제를 등한시 하거나 난폭한·의도적인 행동)을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작업장’ 이라고 함

현장에 적용하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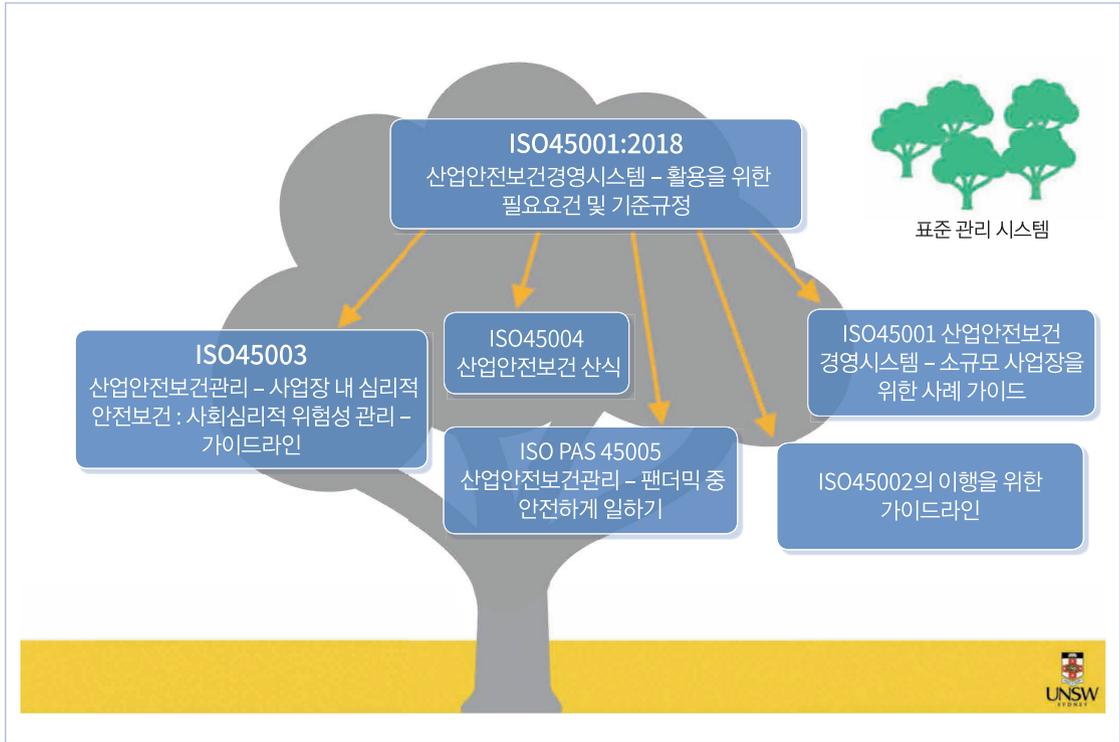
- 영국 심리학회는 영국 전체 사업장의 99%를 차지하고, 영국 민간부문 채용의 3/5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새로운 기준 도입에 참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함
 - » 에커슬리 이사에 따르면 영국산업안전보건청(HSE⁴⁾)은 영국 내 근로자 정신건강 문제의 원인을 업무량의 증가와 경영층 자원의 결여라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이는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 해당함
- ISO 45001을 기존에 도입한 A社の 이안 맥스웰(Ian Maxwell)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“ISO 45003을 통해 사업장이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취하고 통합적인 접근법을 활용하게 할 것” 이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냄
 - » 위험요소의 발견은 심리적 위험요소가 일으킬 수 있는 영향이 어디서 발생하게 될지 등 조직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
 - » 반면에 정신건강(health-wellbeing)은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에게는 새로운 영역이 될 것이며,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심리전문가나 전문적인 자원이 필요하게 될 것임

시사점

한국의 경우에도 감정노동, 과로, 직무 스트레스 및 산업재해 트라우마 등 근로자의 정신 질환이 사회이슈화가 되고 있는 만큼 KOSHA-MS 인증 사업장 등 대기업부터 우선 도입하도록 권고하고, 전체 사업장의 98%이상 차지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 교육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핵심정보 제공이나, 지속적인 근로자 정신건강 관리 필요성에 대한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점차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임

덧붙임

안전보건경영시스템(ISO 45001) 가계도



[출처] : ISO 45003 – The changing landscape for managing psychosocial risks, IOSH Webinar, 30 Sept 2020, Dr Carlo Caponecchia, carloc@unsw.edu.au, UNSW Sydney

출 처 : 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센터 국제안전보건동향 2021. 10월호 제489호

※ 국제안전보건동향은 이메일을 통한 정기 구독이 가능합니다. 신청 및 관련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